

교회현장에서의 인간관계 문제와 기독교상담

강경미 (Ph.D. 그리스도신학대학교 · 교수)

I. 여는 글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성경의 말씀이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은 인간이 독존(獨存)하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임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인류역사를 보면 인간도 다른 영장물과 마찬가지로 소집단을 이루어 함께 생활하고 이동하면서 식량을 찾고 약탈자를 쫓아내며 자기종족을 보존하며 살아왔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집단 내에서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현대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모자관계, 형제관계, 부부관계, 사제관계, 친구관계, 상하관계, 고용관계, 이웃관계 등, 수많은 사람들과 옛날 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중심으로 인간은 대인관계를 통해서만 일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을 나누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성장이나 인격적 성숙과 함께 정신건강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인간관계 형성 노력은 필수적인 것이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인간관계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과 지나친 이기주의로 인해 크게 변화하고 있

1) 임창재, 「정신위생심리」(서울: 학지사, 2001), 318.

다. 더욱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면서 변화의 속도는 사회구조와 환경뿐만 아니라, 생활전반으로 가속화되면서 대부분의 현대인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삶의 허무감과 부정적 자아개념으로 고독과 소외감, 불안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²⁾ 또 이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학교와 직장, 사회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삶의 공허감과 자아 상실감으로 인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으며 또한 교회 안에서의 불건전한 인간관계 때문에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반목하고 분리, 해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앙공동체”로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단체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적 조직에서 인간관계는 공기의 흐름과도 같아서 건강한 인간관계는 조직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 따라서 교회가 신앙공동체로서 활기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일이다.³⁾

불구하고 현재 기성교회에서 교인들을 위한 인간관계 교육은 주로 예배시간에 선포되는 설교와 구역이나 성별, 연령별 모임 등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교리적인 것이 많고 교회생활과 관련된 것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교회가 공동체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구조와 문제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도의 친교 및 대인관계 개선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교회현장에서 나타난 인간관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인간관계의 정의와 형성과정, 개선방법, 미래의 인간관계 동향 등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기독교적 차원에서 기독교 상담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황진우, 「인간관계론」(서울: 학문사, 1997), 179.

3) Gary R.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Texas: Word, 1980), 16-17.

II. 인간관계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

1. 인간관계의 정의

인간의 삶은 주로 대인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서로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은 출생하게 되면 처음 먼저 부모와 가족과의 만남을 통하여 신체적, 심리적으로 성장하며, 동시에 생활양식과 가치관,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성장하면서 이웃의 또래와 함께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 직장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깊이 있고 확대된 인간관계 속에서 나(我)라고 하는 사람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 나와 너의 관계는 상대적인 대상이면서 동시에 함께 존재하는 공존의 대상이다.⁴⁾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인간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는 두 사람 이상이 상호간에 인격적 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인간관계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호의존적 관계로서 다른 사람과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유지, 발전하는 것이며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일정한 집단 내에서 공동체적 목적을 위하여 집단의 협동관계를 구축하는 방법과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⁵⁾

2. 인간관계의 특성과 전제

인간관계는 사람과의 심리적 관계이며 또한 집단 내에서 인본주의에 기초해서 서로의 협동과 조화를 구축하는 관계이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특성과 대인관계 형성 시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할 인간관계의 전제는 다음과 같다.⁶⁾

4) 임창재, 318.

5) 권연옥, 「인간관계론」(서울: 학문사, 1997), 33.

6) Robert A. Baron & Donn. Byrne, Social Psychology (Boston: Allyn and Bacon, 1987), 212-218.

1) 인간관계 특성

(1) 인간관계는 상호의존적 관계로 한사람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결성된다.

(2) 인간관계는 역동적 변화과정으로 서로의 관계가 일정한 수준에서 지속 될 수 없으며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변화하면 인간관계 성격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된다.

(3) 인간관계에는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 즉, 사람은 혈연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인간관계에서는 곤란한 상황을 타개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자신의 임의대로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

2) 인간관계의 기본전제

(1) 인간은 고유한 존재로서 개인마다 각기 다른 지각과 특성으로 반응한다.

(2) 인간관계는 자신과 타인의 이해를 전제로 한다.

(3)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족관계이다.

(4)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은 타인을 보는 관점에 영향을 준다.

3. 인간관계 형성과정

인간관계의 시작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알고 이해하는가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처음 낯모르는 타인과 만나서 사귀게 될 때에 자기 나름대로 검증할 하게 되며, 이때 형성된 개념을 토대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타인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과 이에 작용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타아개념의 형성

타인에 대한 개념은 상대의 첫인상을 보거나 또는 겉으로 드러난 매력과 호감, 능력, 의사소통의 방법 등을 자신의 경험에 의거

해서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속성 등 대인지각에 방해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타아개념 형성 시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판단과 세밀한 관찰이 있어야 한다.

(1) 첫 인상

한 사람에 대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옷차림, 용모, 억양, 행동 등을 관찰하게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가 틀에 맞추어서 첫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타인에 대한 첫인상은 그가 좋은 사람인지, 또는 호감을 주는 사람인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된다. 물론 첫인상에 대한 평가가 타아개념 형성에 정확하지 못할 수도 있다. 불구하고 타인에 대한 평가는 첫인상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인상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초두효과와 최신효과, 고정관념 등이 있다.⁷⁾

(2) 매력과 호감

건전한 인간관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상대방에게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서로가 좋아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친밀한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있다는 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매력과 호감을 느끼고 있으며 서로 만나는 것을 원하는 사이로 근접성과 유사성, 상호성, 신체적 매력, 능력, 자기개방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⁸⁾

(3) 관심

인간관계를 형성,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장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함께 그를 위하고 동시에 그의 안녕과 행복에 기여하려는 태도인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관심이 있을 때 애정을 느낄 수 있으며 가까이 접근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된다. 상대방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성실한 생활태도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실천하는 면을 보여야 한다.

7) 장연집·박경·최순영, 「현대인의 정신건강」(서울: 학지사, 1999), 237.

8) 신용일·김시연·정종식·이수길, 「심리학개론」(서울: 동문사, 1998), 350.

또한 상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수용하고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있어야 한다.⁹⁾

(4)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일반적으로 언어라고 하는 매개체를 가지고 생각과 감정 등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으로 인간관계에 필수적인 것이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인 대화보다는 공통적인 화제를 나누고 대화의 내용과 범위를 상대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대화이기 때문에 화술(話術)은 인간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¹⁰⁾ 또한 비언어적인 행동도 서로의 의사를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따라서 말을 잘못하거나 잘못 이해할 때, 또는 제삼자에 의해서 잘못 전달되는 경우에 오해를 일으켜서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인간관계에서 효과적인 대화의 요건은 신뢰성과 진실성, 성실성이다.¹¹⁾

4. 인간관계의 발전단계

사회학자 Altman과 Taylor(1973)는 대인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을 사회적 침투과정(social penetration process)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친교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서로 간에 공유하고 있는 생활영역과 성격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상대의 존재 핵심으로 침투해 들어감으로써 서로의 친밀감과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침투과정은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열어 보이는 자아개방(self-disclosure)에 의해 촉진된다. 이 과정은 4단계를 거쳐 진행된다.¹²⁾

9) 임창재, 324.

10) 황진우, 101-102.

11) 장연집·박경·최순영, 244-246.

12) I. Altman & D. Taylor, Social Penetration: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3), 69-71.

1) 지향단계(orientation stage)

피상적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단계로서 긍정적으로 자기를 제시하려고 하며 상대방에 대한 비판은 회피하게 된다. 관계형성을 위해 서로를 관찰하는 단계이다.

2) 탐색전 감정교환단계(exploratory affective exchange stage)

이제는 서로 약간 친해져서 감정교환과 말의 교환도 증가하지만 아직 성격의 주변에서만 맴도는 단계이다. 대인관계는 공식적으로 일정한 틀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3) 감정교환단계(affective exchange stage)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의 심층에 거의 접근해서 칭찬과 비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면 깊숙한 중심에는 아직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깊은 속마음은 털어 놓지 않는다.

4) 안정적 교환단계(stable exchange stage)

서로를 거의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거리감이 없기 때문에 속마음과 함께 상대의 소유물에도 마음 놓고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나’와 ‘너’가 아니고 ‘우리’로서 행동하게 된다.

5. 인간관계 유형

인간의 삶은 여러 가지 인연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각종 형태의 인간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간다. 또한 인간은 성장하면서 발달의 각 단계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그때마다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람이 살면서 평생동안 경험하게 되는 인간관계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¹³⁾

1) 공동체적 인간관계와 거래적 인간관계

13) 전국보육교사교육원대학협의회 편 「인간관계론」 (서울: 양서원, 1999), 18-22.

인간의 관계를 호혜성의 원칙에 의거해서 공동체적 인간관계는 일반적으로 가족과 연인 또는 매우 친밀한 친구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인간관계로 서로의 이익을 초월해서 인생을 같이하며 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유형이다. 반대로 거래적 인간관계는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교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거래와 교환의 공정성, 즉 이득과 손실의 균형이 무중요한 관계이다. 거래적 인간관계는 이득과 손실이 중시되는 사업상의 관계나 친밀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 유형이다.

2) 애정 중심적 인간관계와 업무 중심적 인간관계

상대인물에 대한 매력이나 인격에 의해서 관계가 시작되며, 상대적으로부터 긍정적인 감정, 즉 사랑, 우정, 인정을 주고받는 것이 관계 유지에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 애정 중심적 인간관계이다. 그러므로 이 관계는 사람중심적인 인간관계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며 또 서로간의 애정교환의 만족도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해서 업무 중심적 인간관계는 사람에 상관없이 그와 함께 하는 작업이나 업무의 내용과 속성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일 중심의 인간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는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이득과 성과가 인간관계의 주요목적이 된다.

3) 우호적 인간관계와 적대적 인간관계

상대방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태도의 우호성 여부에 따라 우호적 인간관계와 적대적 인간관계로 구분 할 수 있다. 우호적 인간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해 호감을 갖고 서로 돕고자 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는 협동적인 상호관계가 형성된다. 반면에 적대적 인간관계에서는 서로를 적이나 경쟁상대로 인식하여 적대감을 갖고 있으며 상대의 성공과 행복이 나의 실패와 불행으로 간주되어 상대가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4) 수직적 인간관계와 수평적 인간관계

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나이, 촌수, 학번, 계급, 지

위, 권한 등의 동등성 여부에 따라 수직적 인간관계와 수평적 인간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적 인간관계는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불평등 관계를 말하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나 선배와 후배의 관계,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관계에서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한 지휘, 통솔, 명령, 인도, 책임, 보살핌 등의 역할이 기대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에 대해 순종, 존경, 의존의 역할을 해야 된다.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 이러한 수직적 인간관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 반면에 수평적 인간관계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결성되는 평등한 관계로서 교우관계, 연인관계, 부부관계가 이에 해당된다. 수직적 관계에서는 수평적 관계에 비해 하급자의 상급자에 대한 깎듯한 예의가 중시된다. 그러나 성공적이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비록 동등한 수평적 관계에서도 서로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다.

5) 일차적 인간관계와 이차적 인간관계

인간관계의 형성과 유지 요인에 따라 일차적 인간관계와 이차적 인간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차적 인간관계는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의해 형성되는 인간관계로 부모, 형제자매, 친척, 동문, 동향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에 해당된다. 일차적 인간관계는 특성은 첫째, 본인의 의사와 선택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운명적인 인간관계이다. 둘째,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일차적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평생 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셋째,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관계로 일가족, 친인척, 종친회, 동문회 등과 같이 다수로 구성된 집단의 구성원으로 관계를 맺게 된다.

반면에, 이차적 인간관계는 개인적인 매력, 이해관계, 가치의 공유 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결성되는 관계이다. 직장동료나 동지, 애인, 사적인 친구, 친목단체의 구성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차적 인간관계의 대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다. 그러나 일차적 인간관계

에 비해 그 관계가 일시적이다.

6. 대인평가의 오류와 한계

사람이 사람을 인식, 평정하는 대인평가의 작업은 아무리 합리적인 방식과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과 편견이 개입되기 쉽다. 따라서 인식의 결과에는 일정한 오류와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완전히 객관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비록 사람의 인상형성과 판단에 편견과 고정관념 같은 주관적 요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오류를 초래하는 요인들을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서 인식결과를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대인평가 상황에서 오류를 범하기 쉬운 몇 가지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⁴⁾

1) 상동적 태도(stereotype attitude)

인종, 지방별, 직업별로 사람들을 유형화하여 그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개인적 특성이나 조건을 무시하고 모두 공통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그들이 속한 집단 또는 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해 부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상동적 태도라고 한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의 개념형성에 선입관이 포함되는 것으로 인사고과 시에 출신지역이나 출신학교 또는 직종 등에 따라서 사람을 평정하게 되는 경우를 말 한다

2) 형광효과(halo effect)

한 분야에 있어서의 피고과자에 대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인상이 다른 분야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형광효과라고 한다. 즉 피고과자의 한 가지 장점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현혹되어 그 사람의 다른 면도 무조건 좋게 평가한다거나, 반대로 피고과자의 한 가지 단점 때문에 다른 면도 모두 나쁘

14) 황진우, 56-58.

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 예로 책임감 하나만 보고 그의 능력이나 판단력도 좋다고 평가한다거나 또는 신체적 특성을 중심으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3) 논리적 오류(logical errors)

위에서 언급된 현광효과는 고과자 개인의 특성에 의한 평가 상의 오류인데 반하여 논리적 오류는 고과자가 각 고과요소 간에 논리적으로 불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믿고 평가할 때에 발생하는 오류이다. 그 예로 근면한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작업성도 남보다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4) 대비오류(contrast errors)

타인의 특성을 자기 자신의 특성과 비교하여 평가할 때 발생하는 오차를 대비오류라고 말한다. 즉 피고과자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자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나타나는 오류이다.

5) 관대화 경향(leniency tendency)

일반적으로 피고과자 평정 시에 나타나는 오류에는 고과자가 실제보다 관대하게 평가해서 평가결과의 분포가 상위에 편중되는 관대화 경향(leniency tendency)이 있으며 또한 대체로 고과대상자를 「중」 또는 「보통」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분포도가 중앙에 집중되는 중심화 경향(central tendency)의 오류가 있다.

7.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인간관계란 두 사람 이상이 상호간에 인격적으로 작용하며 관심을 가지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대인관계에서 작용하는 인격적 측면은 개인의 정서, 성격, 동기, 또는 행동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의 특성과 성격이 만나서 이루어지

는 인간관계는 형성내용에 따라 서로의 삶을 성공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건전한 대인관계일 수도 있고, 반대로 그 관계가 원만치 못하여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불건전한 관계일 수도 있다.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당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불건전한 인간관계로부터 비롯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¹⁵⁾

정신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서도 건설하지 못한 인간관계가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것으로 정신장애의 평가와 진단에 기준서인 DSM-IV(Di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IV)에서도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한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며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비사교적인 사람 중에는 생활 적응 상의 문제는 물론이고 고독과 허무감,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의 문제까지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신경증이나 정신병으로 발전해서 자살과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¹⁶⁾ 이외에도 인간관계는 신체적 건강과도 연관되어서 인간관계 단절에서 오는 소외감은 신체적 질병으로 발전해서 각 중 만성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확률이 다른 사람에 비해 배가 높았다. 반대로 타인으로부터 집중적인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은 회복도 빠르고 생리적 고통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그러므로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역할을 담당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 규범과 관습에 합치되며 타인과 사회적 환경사이에서 적절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8. 인간관계 장애와 유발요인

인간관계장애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구분하지만 크게 인간교제

15) 조수환, 「정신위생」(서울: 동문사, 1998), 123-124.

16) 이현수 「이상행동의 심리학」(서울: 대왕사, 1999), 284.

17)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서울: 학지사, 1998), 268.

장애와 인간관계 폐쇄로 대별 할 수 있다. 먼저 인간교제장애는 상대방에 대해 지나치게 공격적, 적대적, 경쟁적, 또는 비협조적, 비사교적, 회피적, 의존적인 행위로 타인과 원만하고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장애는 개인의 성격이나 행동변화로 관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애이다. 인간관계 폐쇄는 주로 심한 성격장애나 정신장애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외부세계와의 단절되어 있으며 타인과 사회에 대해 무관심, 무반응, 또는 감정의 봉쇄로 정상적인 대인관계 형성이나 교제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¹⁸⁾

이러한 인간관계장애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은 개인의 인지, 정서, 성격장애등 심리적 원인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¹⁹⁾ 인간관계에서 인지장애란 개인이 사물이나 타인을 대할 때 지나치게 주관적인 사고방식과 편견을 가지고 왜곡되게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의 어느 한 면만을 보고 단정해 버리기 때문에 상호간에 진정한 인간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감정장애는 인간의 쾌, 불쾌, 슬픔, 미움, 분노 등 어느 순간의 감정상태를 표현하는 심리현상의 장애로 감정이 지나치게 둔하거나 무감동, 또는 감정의 통제가 불가능해서 현실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감정표현이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감정장애 역시 타인과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불가능 하게 한다.

성격장애는 한 개인의 성격이 지나치게 난폭하거나 냉담, 융통성이 없으며, 이해심의 부족으로 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어서 타인에 대한 배려나 용서, 사랑이 부족한 사람으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9. 인간관계 개선방법

18) Linda A. Heiden & Michel Hersen, Introduction to Clinical psychology, 이영호 역, 「임상심리학 입문」(서울: 학지사, 2001), 356.

19) 이현수, 101-103.

한 개인이 인관관계 장애로 인해 사회생활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 결국 인생의 낙오자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타인과 또는 단체에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적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간관계의 조건과 개선방법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²⁰⁾

1)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신의 첫인상이 좋아야 한다. 만일 남에게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면 그로 하여금 접근하게 만들고 또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될 때에는 두 사람의 인간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2)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적극적인 관심과 성실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비록 자신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용의 자세로 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3) 자아실현한 사람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완전한 인격과 능력의 배양이다. 현실을 보다 더 잘 지각하고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해 훌륭한 인격과 능력을 갖추어 남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이다.

4) 건전한 인간관계는 상대의 자율성과 인격존중을 기초로 상대의 자유의지와 인간적 가치가 보호되고 인정될 때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자율성이나 개성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은 불가능하다.

5) 건전한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를 자신의 욕구충족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기에게 고유한 개성과 자유의지가 있다면 상대의 개성과 자유의지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²¹⁾

6) 자신의 인간관계 기술을 계발해서 개선, 발전시켜야 한다. 사

20) 권연옥, 55.

21) 조수환, 137.

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비합리적인 사고를 수정하고 부적응적인 행동은 개선해서 건전한 인간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9. 미래사회의 인간관계

한국사회는 이미 전통적인 위계구조가 붕괴되고 수평적인 인간관계로의 전환현상이 일반화 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권위의 상징이었던 스승이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위치와 관계 없이 능력평가제가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관계에 대한 기존의 규범은 상실되고 있으며 인간관계의 형태와 조건도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미래사회는 대체로 반인간화로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이 많다.²²⁾ 그러나 현대의 정보사회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비관적인 미래를 거부하며 미래사회의 첨단기술들은 더욱 인간주의의 기술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변화와 함께 인간다운 삶의 모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형태에 맞는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 변화와 연관해서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예상하면 다음과 같다.²³⁾

1) 인간성 회복과 인간관계 중심의 사회로 이행

미래사회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 사회로, 수직적 사회에서 수평적 사회로, 기술일변도의 사회에서 고도의 기술 및 인간성 회복을 지향하는 사회로 이행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사회가 더욱 인간관계를 중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미래사회는 끊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면서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특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2) 인간관계의 빠른 주기적 변화와 심리적 스트레스의 가중

22) 황진우, 188.

23) 전국보육교사교육원대학협의회, 22-23.

미래사회는 인간관계의 회복과 더불어 인간관계 그 자체의 변화도 수반 될 것이다. 사람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과거보다 훨씬 짧은 주기로 반복하게 되는 미래사회에서는 인간관계 그 자체가 심리적 압박을 가중하게 될 것이며 이는 미래의 사회변화가 인간관계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개인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각 관계가 요구하는 법칙을 잘 이해하고 적응해야 한다.

3) 정보화 사회에 따른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현대와 미래사회에 미디어기술은 인간관계에 가해지던 시간 및 공간적 제약이 없어지면서 인간관계에 범위와 기회가 확장되고 있다. 또한 면대면 상황으로만 국한되던 인간관계가 속도, 정보량, 도달범위에서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익명의 사이버 공간을 넘나들면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와 폭으로 인간관계의 지평을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쌍방향 미디어의 등장은 기존의 미디어가 할 수 없었던 사람들 사이의 생생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면서 인간관계의 원형적 모습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오히려 바람직하게 회복한다는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인간의 감각기관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정보처리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4) 거래적 인간관계의 특징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속성에 따라 공동체적 인간관계와 거래적 인간관계가 적용되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든 관계가 거래적 인간관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미래사회에서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부모-자녀의 관계, 부부관계, 형제자매의 관계, 스승-제자 간의 관계 또는 친구관계, 연인관계에도 이러한 거래적 관계의 원칙을 적용시켜 호혜성과 형평의 원리를 찾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는 이 거래의 원칙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불안정해지거나 붕괴될 것으로 본다.

Ⅲ. 인간관계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

“관계가 없으면 종교도 없다(no relation, no religion)”라는 말이 있다. 따라서 종교(religion)와 관계(relation)의 어원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종교는 곧 관계, 즉 하나님과 나와 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로 요약될 수 있다.²⁴⁾ 또한 인간관계를 성경에서는 “코이오네오, 코이노이아, 코이노코스”등의 헬라어를 사용한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성도의 교제(fellowship)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²⁵⁾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인간관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목사와 성도, 그리고 성도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통해 신앙적 인격이 형성되고 신앙생활의 진보를 경험하게 되며 더 나아가 교회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²⁶⁾ 이와 같이 교회생활에 인간관계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도들의 세상적인 관계(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시부모관계)에만 치중해서 여러 가지 관계성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를 통해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정작 교회 내에서 문제되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목회자의 설교와 함께 성도들 간의 제직회나 선교회 모임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나 기초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최근 목회상담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 성경적인 인간관계

양창삼은 성격적인 인간관계에 대해 하나님 안에서 신자로서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며,

24) 김형태, 「인간관계론」 (서울: 장로신보사, 1994), 89.

25) 양창삼, 「인간관계 예수님 눈 높이로」 (서울: 예찬사, 1996), 18.

26) John Patton, Ministry of the Church (Nashville: Abingdon, 1983), 61.

또 이를 기본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타인이해와 수용이라고 정리했다. 이러한 개념을 기본으로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²⁷⁾

1) 하나님이 있는 인간관계이다.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나님의 복된 관계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며 성령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적, 심리적 관계임을 알 수 있다.

2) 서로를 생각하는 인간관계이다.

인간은 홀로 완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맺어짐으로 형성된다. 성경에도 “서로”라는 말을 강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갈 6:2)”. 여기서 짐이란 인간적인 연약함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용서하는 인간관계이다.

성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6:12)”라는 말씀같이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의 인간관계는 용서를 전제로 하는 관계이다.

4)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관계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기독교인들에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19:19, 22:39)”라는 계명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된 삶(요 14:20)”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간관계는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관계이다.

27) 양창삼, 18. 김승규, “자기성장 집단상담이 교인들의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 교육대학원, 1997), 17-18.

5) 판단보다 이해의 관계이다.

바울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부요에 이르라(골 2:2)”고 권고하였다. 성경의 이해라는 의미는 헬라어의 “시니미 (synimi)”에서 유래한 말로 ”함께 있다, 동행한다, 동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즉 상대와 함께 있고 동행하며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서로간의 이해를 전제로 하는 관계이다.

6) 서로의 긍정적 자아상을 확립하는 인간관계이다.

자아상(self-image)이란 자기 모습에 대한 인식과 느낌, 태도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와 타인을 수용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아상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다(엡 1:1-14 ; 사 43: 1-7 ; 뵤전 2: 9-10). 그러므로 성경적인 인간관계는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함께 상대방의 긍정적인 모습과 가치를 수용하고 그 가치와 위치를 함께 나눌 때 성립될 수 있다

7) 상대의 행복을 기뻐할 수 있는 인간관계이다.

성경의 이웃사랑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심 없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돕는 인간관계이다.

8) 반성의 인간관계이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 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빌 2:3)” 이 말씀은 바로 올바른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2.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인간관계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걷는 것”으로 비유하고, 지

역교회를 중심으로 누구와 함께 걸어야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자세하게 기술했다. 바울은 교회생활을 잘하려면 성경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첫째는 목회자와 함께(살전 5:12-13) 걸어야 하고, 두 번째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살전 5:14-15),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살전 5:16-22)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⁸⁾

1) 목회자와 함께 걸어라(살전 5:12,13)

목회자는 “성도들 가운데” 있으며 동시에 “주 안에서 성도들 위에” 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며 영적으로 올바르게 인도하는 일을 한다.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목회자는 수고와 눈물로 성도들을 섬긴다.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으며(행 20:31),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따라서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했으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갈 4:14,15). 성도가 목회자와 함께 걸으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1) 목회자를 알고 이해해야 한다.

교회 내에서 목회자의 위치와 하는 일을 똑바로 알고 또한 그들의 마음과 수고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하며 그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해야 한다.

(2) 목회자를 사랑 안에서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우셨고, 또 그들은 우리를 위해 수고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에게 비록 실수와 허물이 있더라도 비방하거나 도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민12장, 13장).

(3) 목회자가 평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성도들끼리 화목해야 한다.

28)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성결한 삶과 교회의 나아갈 길, 구역교제(강사용), 1993, 103-106.

주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 끼리 불화, 반목, 분쟁하는 것은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 아니라 그의 사역을 방해하게 된다.

2) 형제, 자매와 함께 걸어라(살전 5:14,15)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의 모임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며, 동시에 다른 자녀들과는 형제, 자매가 된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늘나라 가는 그 날까지 함께 걸어가야 하며 이와 함께 교회생활에서 개인주의나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은 없어야 한다. 다윗과 요나단은 참으로 훌륭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신실한 관계로 그 변치 않는 우정과 함께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도와주고 그의 피난을 협조했다. 둘째, 의로운 관계로 그들은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초월해서 상대를 진정으로 보살폈다. 셋째, 그들은 약속에 충실한 관계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아닌 나와 너의 교제에 충신했던 것이다.²⁹⁾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다른 성도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함께 걷기위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규모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교회 내에는 어느 집단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직분에 따라 지켜야 할 규율과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규율과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걷기를 고집하는 형제가 있으면 그를 권면해서 함께 걸어가야 한다.

(2)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라.

교회 안에는 삶의 역경과 고난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용기를 잃은 사람들과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낙심해 버리는 사람, 또는 박해와 고난이 닥치기도 전에 마음을 바꾸는 사람 등, 마음이 약하고 용기가 없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으며 우리는 이들을 가까이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동행해야 한다.

(3)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29)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날마다 말씀마다, 가정예배서, 1994, 52.

아직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 또는 넘어질 듯 불안하게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걸어가야 한다.

(4)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교회는 각양 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서로 각기 다른 개성과 신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까운 사람은 물론 상반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함께 가야 한다.

(5)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좇으라.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의 방법이며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그리스도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는 악을 선으로 베풀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3)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살전 5:16-22)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앞길을 인도하는 등이요, 빛이 되며 더 나아가 그의 말씀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표준이 된다. 하나님은 항상 자녀 된 성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³⁰⁾ 따라서 모든 일에 있어서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행해야 만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적극적 해야 할 일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따라서 항상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없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한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30) Ray S. Anderson, Christian Who Counsel (Michigan: Zondervan, 1990), 83.

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은 그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감화시킨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은 예언, 곧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믿고 선과 악을 구별해서 악은 과감하게 버려야만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3. 교회 내 인간관계 문제의 원인과 유형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람으로 서로의 교제를 통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복음의 파수꾼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교회 안에는 목회자와 직분자간의 문제와 직분자와 성도간의 문제, 평신도와 평신도 간의 교우문제 등, 서로의 관계성이 파괴되어 갈등과 반목과 함께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의식이 상실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크게 교회 외부적인 문제와 교회 내부적인 문제로 구분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³¹⁾

1)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문제의 원인

(1) 외부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교회와 교인들의 가치관 변화.

급격한 정보와 산업사회로의 변천과정에서 물질에 대한 교회와 성도들의 가치관의 변화이다. 즉 교인들은 소득의 향상으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게 되면서 주일에도 일을 하게 되면서 신앙을 무시하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주말 여가문화는 주일성수라는 신앙의 본질인 예배를 소홀하게 되면서 교회 내에서의 성도들의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과 영상매체를 통한 예배와 설교가 급증하면서 가정에서 쉽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직접 목회자와 성도가 교제할 필요가

31) 김선도, “현대 그리스도인의 갈등과 그 치유적 설교를 말한다,” 「월간교회」, 제6권(1993, 5): 64-66.

없게 되었다.

(2) 교회 내부적 환경변화에 따른 인간관계의 변화

과거에는 교회 내에서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이제는 교회 안에 점점 세상적인 경향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성도들이 신앙적 요구와 세상적 요구와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해 목회자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잘못된 인간관계로 인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면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개인주의로 이기심만 팽배해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관계성의 파괴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하게 되며 이로 인해 성도들끼리 자존심의 상처와 대화의 단절, 오해와 갈등, 싸움 등이 유발하면서 교회 내에서 인간관계 폐쇄와 안일주의, 형식주의, 무관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2)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문제유형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목회자와 전도사, 또한 장로, 권사를 위시한 직분자, 교회학교의 교사,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이며 이들이 모여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문제는 첫째, 목회자와 목회자(부목회자와 전도사)의 관계에서, 둘째는 목회자와 직분자, 셋째는 목회자와 평신도, 넷째는 직분자와 직분자, 다섯째, 직분자와 평신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신도와 평신도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반목의 문제이다. 성경에는 성도간의 불화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의 특성으로 분쟁을 노리는 자(갈 5:19, 20 ; 엡 4:25-27), 된 줄로 아는 자(고전 10:12 ; 살 6:3), 거만하고(잠 22:10) 교만한 자(잠 11:2, 13:10)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 5:22), 송사하는 자(마 5:25), 음욕하는 자(마5:28, 잠 5:20), 능욕하는 자(잠 14:21), 불량하고 악한 자(잠 6:12-14), 미련한 자(잠 11:12, 14:3, 18:6), 말이 많은 자(잠 10:19, 11: 13), 패려하고 강포한 자(잠16:28, 29), 노를 품는 자(잠22:24), 악을 행하고 거짓말 하는 자(잠17: 4)들을 지적하고 있다.

4. 교회 내 인간관계 문제와 기독교상담

교회는 믿는 사람들로 형성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하나의 공동체가 발전해 나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은 교제이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중요한 네 가지 덕목은 겸손과 온유함, 오래 참는 것과 서로 용서함이다. 그러나 현대 교인들은 마음이 조급하고 감정이 메말라서 자신의 사고나 주장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서로 용서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이는 바로 대인관계 또는 인간관계 훈련이 제대로 받지 못해서 대화의 기술과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타협하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³²⁾ 그러나 현재 기존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간관계 교육은 주로 일상생활의 가족문제와 연관되는 것이며 교회생활과 연관된 것은 별로 없다. 하지만 성도들의 생활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기본이고 또한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는 성도들의 신앙적 성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기독교 상담이나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서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1) 인간관계 문제와 기독교 상담

하나님께서 성경에 성도는 한 가족(엡 2: 19 ; 히 2:11)임으로 모두 화평케 하는 자(마 5:9 ; 약 3:18)가 되어서 여럿이 화목하라(롬 12:18-21 ; 히 12:14)고 말씀하셨다. 또한 싸우고 다투면 피차 멸망(갈 5:14,15)하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 하고(잠 16:32 ; 약 1:19)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경고하셨다. 따라서 성도가 교회 안에서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형성,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불건전하고 비 신앙적인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간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교회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독교 상담의 정의와 목표, 역

32)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가정예배서, 23.

할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독교 상담의 정의

기독교 상담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종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기술에 자신의 지식과 통찰을 사용해서 내담자들을 인격적으로 보다 완전하게 하며 사람들과 더불어 보다 원만하게 살면서 정신적인 안정과 함께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를 의미한다.³³⁾

(2) 기독교 상담의 목표

인간관계 문제와 연관된 일반상담에서의 목표를 보면 첫째, 내담자로 하여금 인간관계 문제가 되고 있는 잘못된 사고와 행동, 태도, 인식 등을 개선해서 자신과 타인의 대한 정확한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의사소통기술을 훈련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느끼고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셋째, 필요할 때 붙들어 주고 지지해 주어서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자아인식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배양해서 판단이나 결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과거의 정서적 충격과 상처들을 회피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직면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인간관계 위기에 처한 내담자에게 자신의 내부나 주의환경에 있는 자원들을 동원해서 문제 해결에 사용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기독교 상담에서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함께 완성해야 할 것이다.³⁴⁾

① 성경의 가르침을 기초로 인간관계의 가치체계를 새롭게 형성하도록 돕는다.

② 죄를 자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관계를 개선한다.

33) Gary R. Collins, The Biblical of Christian Counseling for People Helpers, 안보현 역 「기독교상담의 성경적 기초」(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33.

34) Gary R. Collins, Case Studies in Christian Counseling, 정태기역, 「기독교 상담사례연구」(서울: 두란노, 1995), 31.

③ 신앙의 실천으로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한 삶과 태도, 생활양식에서 모범이 되도록 한다.

④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도록 격려 한다.

⑤ 영적으로 성장해서 모든 사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한다.

(3) 기독교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

기독교 상담자들은 상담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목회의 한 분야로 본다. 그러므로 기독교 상담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헌신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성경은 삶에 관한 모든 질문에 충분히 대답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부합되는 상담방법을 찾아내야 하며 도덕적으로 옳지 않거나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방법과 기술들을 목인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³⁵⁾ 이는 기독교 상담에서의 기술 즉 수단과 방법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함으로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내담자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내담자의 영적인 욕구와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³⁶⁾ 따라서 기독교 상담자들은 면담 중에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며 성경의 디모테처럼 말과 행실과 사랑과 순수함에 있어서 주위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딤후 4:12).

인간관계 상담에서 기독교 상담자들의 역할과 함께 할 수 있는 종교적인 기술들은 다음과 같다.³⁷⁾ ① 문제의 내담자를 위해서 사적으로 드리는 기도 ② 문제의 내담자와 함께 드리는 기도 ③ 내담자와의 면담이나 개별상담 ④ 내담자를 포함해서 문제집단과 함께 하는 집단상담 ⑤ 인간관계와 관련된 성경말씀이나 기독교서적

35) Lawrence J. Crabb, *Understanding People*, 오현미 역, 「기독교상담심리학」(서울: 나침반사, 1993), 95.

36) Collins, *Case Studies in Christian Counseling*, 28.

37) Collins, *Case Studies in Christian Counseling*, 29-30.

38) 김성규, 11-12, 재인용.

읽기 권유 ⑥ 인간관계 관련 세미나 또는 치료집단 및 훈련에 참여 권고 ⑦ 내담자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제자로 만들기 ⑧ 기독교 내적 치유법 사용 ⑨ 사탄의 세력과 직접 싸우는 구출법이나 귀신 축출

2) 교회 내 인간관계문제와 기독교 상담의 적용

Clinbell(1995)은 교회를 사회적인 유기체로 보고 교회 활동에 전인적인 접근방법을 적용했다. 또한 그는 교회를 하나의 생명구조체로 보고 “생명체 구조”와 “하부구조” 두 가지로 구분했으며 인간이나 교회의 활동은 이 구조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생명체 구조의 특징은 첫째, 교회의 전체성(wholeness)으로서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것과 둘째, 교회는 개방적 체제로서 전체와 부분들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이며 셋째, 교회의 동질성으로 모든 지체들은 목적과 가치에 있어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³⁸⁾ 이와 같이 처음에 교회는 소규모의 기독교 모임으로 시작되었고,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지역 교회를 성장시켰던 초대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교회를 돕는 집단으로서 전체적인 기능을 했다. 즉 병을 고치고, 인도하고, 깨어진 인간관계를 치유하는 일이었다.³⁹⁾ 그러나 현대 교회는 양적으로 팽창되면서 이러한 기능들을 할 수 없었으며 또한 성도들의 기복 신앙과 현세적 가치관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돕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이 더욱 활성화 되고 또한 많은 이론과 접근 방법과 기술들을 개발해서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 상담과 연관해서 인간관계 개선 프로그램으로 자기성장프로그램과 참 만남 집단상담, 인간관계치유, 그리고 교인들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훈련법과 용서 훈련법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38) John Patton, 51.

39) 윤홍섭·이형득, “자기성장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지도상담」 제 5집(계명대학교 생활지도연구소, 1980), 3-13.

(1) 자기성장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이형득의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김성국이 교인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한 것이다. 자아정체성 결여와 가치관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개인 또는 집단 상담을 통해 의도적인 노력과 훈련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또 가치관을 확립해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타인을 이해하고 한 인격으로 수용해서 교회 안에서의 무의미한 대립과 고립, 갈등 없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신앙생활에 함께 정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다. 이에 관한 실증연구로 김성국의 기독교 교인들을 대상으로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성도들의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자기성장 훈련을 받은 실험집단은 훈련을 받지 않는 통제집단에 비해 인간관계 척도에서 사후 검사득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경희의 자기성장 훈련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인간관계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와 일치했다.⁴⁰⁾ 그러므로 자기성장 훈련 프로그램은 교인들이 자기를 수용하고 개방하며 동시에 상대방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고 수용함으로써 대인관계 증진에 도움을 주어 바람직한 교회생활과 함께 기독교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2) 참만남 집단상담

미국에서 “인간성 회복운동”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던 참만남 집단의 의미는 개인의 성장과 자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성된 기본적인 인간관계집단으로 타인과의 개방적이며 정직한 관계를 경험하는 학습집단이다. 즉 개방성과 정직성을 비롯하여 인간의 자아인식과 책임성, 그리고 타인과의 의사소통과 관계의 향상을 강조하는 인간관계 훈련집단이다. 그러므로 참만남 집단에서는 먼저 체험하고(do), 느끼고(feel), 그리고 생각하는(think)하는 순서로 훈련이 이루어진다. 이 집단은 소집단의 형

40) 김경희, “자기성장 프로그램의 효과,” 목포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6집 (1993): 75-77.

식(8-18명)으로 구성되며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보다는 정상적인 개인으로 상호간의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개적이고 즉각적인 “지금 여기서”의 감정표현과 “나와 너”의 관계에서의 상호간의 피드백을 주고 받게 된다. 기술적으로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을 사용하며 그 목표는 참 만남 집단 생활경험을 통해 개인의 왜곡된 인성의 변화와 함께 인간관계를 개선해서 개인을 성장, 발전시키는 것이다.⁴¹⁾ 이에 대한 실증 연구로 김승규의 교인 20명을 대상으로 참만남 집단 상담이 교인들의 인간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한 결과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상담이 교인의 인간관계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교인의 신앙생활 성숙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신앙생활 성숙도가 높은 교인일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⁴²⁾

(3) 인간관계 치유상담

기독교 관점에서 건강의 개념은 구원이고 생명이다. 이는 바로 인간과 환경,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의 회복으로 자신과 사람들, 환경,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의미한다. 따라서 치유상담이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과 피조물, 이웃과 자신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로 기독교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⁴³⁾

최근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60세 이상 된 노인 중에서 교회 활동에 참가하는 노인들의 사망 위험률이 일반 노인들보다 현저하게 낮았으며 또한 교회에 자주 참석하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활발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불안을 덜 느끼며 정신질환에 걸릴 비율도 낮았다. 이와 같이 교회생활과 연관된 신앙적 헌신이나 성도들과의 교제는 사람들 마음에 의지와 희망, 힘과 위안을

41) 이형득 · 설기문, 「참만남 집단의 원리」(서울: 형설출판사, 1983), 19-21.

42) 김승규, 41.

43) 강경미, “PNI & E System과 21C 치유선교전략,”(아세아연합신학 치유선교대학원, 석사논문, 1999), 56.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게 해 줄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가 높아서 자살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⁴⁴⁾ 그러므로 현대인들의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의미 상실, 소외, 분열, 또는 여러 가지 정신장애 등, 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책의 하나는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개선을 강조하는 치유상담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4)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실천적 신앙을 말하는 야고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먼저 혀의 사용을 말하고 있다. 즉, 혀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올바른 말을 사용하도록 성도들의 언어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언어에 문제가 있는 내담자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조목별로 적어서 여기에 점수를 매긴 후에 일상 생활에서 하는 말을 매일 점검하면서 지혜로운 언어사용을 실천하도록 돕는 방법이다.⁴⁶⁾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

① 선생되지 마라.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3:1), 또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다.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딤후1:6-7)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는 바로 실천하지 못할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또한 말하는 바의 의미를 똑바로 깨달아 남에게 율법의 명예를 씌우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

② 진실한 말 사용하기, 성경은 거짓말은 입밖에 내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되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엡 4:25)고 권한다. 이는 거짓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밖

44) Dale A. Matthews, Harold. G. Koenig, David B. Larson, "Spirituality and Medicine Outcomes," Spirituality Healing in Medicine - IV. (Boston: Harvard Medical School, 1997), 21-22.

45) David Mckenna, The Psychology of Jesus(Texas: Word, 1977), 115.

46)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성결한 삶과 섬기는 교회, 구역교제(강사용), 1992, 139-142.

에 내지 않는 자세와 함께 만일 내가 참말을 함으로 남에게 해가 될 경우라면 침묵하는게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③ 믿음의 말 사용하기, 믿음의 말은 남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말로 남에게 기쁨을 주는 말, 범사에 감사하는 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말을 의미한다.

④ 경우에 합당한 말 사용하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과 금사과”(잠25:11)라고 했으며 또한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잠 15:23)라고 말씀했다.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등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로 지혜로운 말이다.

⑤ 책임 있는 말 사용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에 대한 책임으로 자신이 한 말에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 책임 있는 말을 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환상적인, 비현실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면서 실천 가능한 말을 하는 것이다.

(5) 용서훈련 프로그램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타인과 서로 용서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다. 용서 훈련프로그램은 다음 세단계로 진행되며, 실제로 서로 용서하는 생활을 하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⁴⁷⁾

① 제 1단계: 새 마음을 입자. 예수님께서서는 용서에 대한 교훈으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 6:14,15).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저지르는 잘못과 실수를 관대

47)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구역교재(강사용), 1993, 108-110.

하게 용서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② 제2단계: 범죄 한 형제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긍휼 즉 하나님의 눈으로 범죄 한 형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히 8:12)을 배워서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한다.

③ 제3단계: 실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히 10:17, 18)” 그리고는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처럼 인정하시고 대우하신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우리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할 때 그의 범죄나 그에 따른 원한, 복수심을 다 잊어버리고, 범죄하기 전과 동일하게 그를 사랑해야 한다.

인간관계 기술은 체험에서 습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많은 상담과 치유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IV. 닫는글

사람은 누구나 일생에 중요한 만남들을 가진다. 이 만남들을 통하여 타인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인간관계를 통하여 더 붙어 함께 사는 지혜와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관계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인격적으로 장기간 접촉하는 관계를 말하며, 이때에 한 개인의 사상이나 언행은 다른 사람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인간관계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물론 사회집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간관계의 성격은 매우 다양하며 관계하는 사람과 내용에 따라 개인의 행동특성은 다르게 발전한다. 쉽게 구분될 수 있는 행동특성에는 가치관, 신념, 태도, 역할행동, 그밖에 의존심, 독립심, 공격성, 협동성, 경쟁심 등 광범위하며 개인의 인성과 정신건강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⁴⁸⁾ 따라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48) 한규석, 245.

유지하려면 부적응 가능성이 있는 생각이나 언행은 개선해야 하며 또한 평상시에 인간관계의 성격을 잘 파악해서 대상에 따라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양창삼은 그리스도인의 깊은 인간관계가 주는 유익으로서 "모든 일에 생산적이다" "영적인 안정을 가져다 준다" 또는 "신앙생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일반 성도들의 삶의 희망이며 목표이다.⁴⁹⁾ 또한 Sweeten "조직적인 인간관계 훈련"을 교회에 적용할 때 비기독교인의 모임과 다르게 영적 차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더욱 유익하다고 말했다.⁵⁰⁾ 따라서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과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개선, 또는 증진시킬 수 있는 상담이나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교회현장에서 나타난 다양한 인간관계문제를 이해하고 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심리학의 이론과 기독교 상담의 원리를 이용한 몇 가지 상담과 훈련의 방법들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문헌고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본 논문도 교회현장에서 직접 연구한 실증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내의 인간관계 문제와 해결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른 이해와 해석에 제한이 있음을 지적한다. 앞으로 본 연구를 기초로 이 방면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서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문제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한국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49) 양창삼, 118.

50) 김성규, 12.

※ 참고문헌

- 강경미. “PNI & E System과 21C 치유선교전략.” 석사학위논문: 아세아 연합신학 치유선교대학원. 1999.
- 권연옥. 「인간관계론」. 서울: 학문사. 1997.
-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성결한 삶과 섬기는 교회.” 구역교재(강사용). 1992.
-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성결한 삶과 교회의 나아갈 길.” 구역교재(강사용). 1993.
-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날마다 말씀 따라.” 가정예배서. 1994.
- 김경희. “자기성장 프로그램의 효과.” 목포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6집 (1993).
- 김선도. “현대 그리스도인의 갈등과 그 치유적 설교를 말한다.” 「월간교회」. 제 6권(1993). 김승규. “자기성장 집단상담이 교인들의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육대학원. 1997.
- 김형태. 「인간관계론」. 서울: 장로신보사. 1994.
- 신용일·김시연·정종식·이수길. 「심리학개론」. 서울: 동문사. 1998.
- 양창삼. 「인간관계 예수님 눈 높이로」. 서울: 예찬사. 1996.
- 윤홍섭 ·이형득. “자기성장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계명대학교. 「지도상담」 제5집(생활지도연구소, 1980).
- 이 현. 「이상행동의 심리학」. 서울: 대왕사. 1999.
- 이형득·설기문. 「참만남 집단의 원리」. 서울: 형설출판사. 1983.
- 임창재. 「정신위생심리」. 서울: 학지사. 2001.
- 장연집·박경·최순영. 「현대인의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1999.
- 전국보육교사교육원대학협의회 편. 「인간관계론」. 서울: 양서원. 1999.
- 조수환. 「정신위생」. 서울: 동문사. 1998.
-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1998.
- 황진우. 「인간관계론」. 서울: 학문사. 1997.
- Andersonc Ray. S. *Christian Who Counsel*. Grand Rapids: Zondervan. 1990.
- Altmanc I. & D. Taylor. “Social Penetration.”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3.
- Baron, Robert A. & Byrne. Donn. *Social Psychology*. Boston: Allyn and Bacon. 1987.
- Collins, Gary R. *Christian Counseling*. Texas: Word. 1980.
- Collins, Gary R. *Case Studies in Christian Counseling*. 정태기 역. 「기독교상담사례연구」. 서울 :두란노, 1995.
- Collins, Gary R. *The Biblical of Christian Counseling for People Helpers*. 안보현 역. 「기독교상담의 성경적 기초」.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 Linda, Heiden A. & Hersen, Michel. *Introduction to Psychology*. 이영

- 호 역. 「임상심리 학입문」. 서울: 학지사. 2001.
- Crabb, Lawrence J. *Understanding People*. 오현미 역. 「기독교상담심리학」. 서울: 나침반사. 1993.
- Mattews, Dale A. Koenig, Harlord. G. Larson, David. B. "Spirituality and Medicine Outcomes." *Spirituality Healing in Medicine - IV*. Boston: Harvard Medical School. 1997.
- Mckenna, David. *The Psychology of Jesus*. Texas: Word. 1977.
- Patton, John. *Ministry of the Church*. Nashville: Abingdon. 1983.

K C I

Abstract

Problems of Personal Relationship within the Church in Christian Counseling

The personal relationship is the interactive relationship among people. The behavior of a person influences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 on other people. Variety of personal relationship is formed and developed differently in accordance with the kind of people relationship. Personal relationship is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on personality and mental health.

Yang, C. argues that the benefit of deep personal relationship in Christian life are as the followings: deep personal relationship makes people productive in his(her) work, it also gives spiritual stability and improves quality of life. Sweeten argues that the training program of personal relationship in the church inhances spirituality of the people. Therefore for further growth of the church it is very important to provide a training program or counseling service for improving personal relationship in the church.

This paper discussed several methods for training and counseling under the Christian counseling approach.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further research on healthy personal relationship of church goers, which are urgently demanded in the current church.

*** Key Words**

church, problem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Bible, God, Christian counseling